

칼폴리대 한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칼폴리 주립대학교 평생대학(College of Extended University)이 한인사회와 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연령이나 대학입학 자격에 관계없이 칼폴리의 모든 학과를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병행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학과나 취미활동을 위한 학과의 이수를 통해 사회생활 환경과 개인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평생대학 과정 전문지식 취미생활 등 다양한 과목 강의시간 장소도 융통성

이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의 경영대학원이나 평생대학원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고 기계공에서부터 농부, 식당이나 호텔 등 여러 사업의 경영자 등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를 향상시키고 싶거나 음악, 미술, 연극 등 취미생활을 위한 과목을 언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전의 대학 교육이 학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

에게 이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생산적 학문을 언제라도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 등을 학교 캠퍼스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출장 강의(단체의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학은 일차로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하면서 LA 및 남가주 전



칼폴리 대학교 평생대학(College of Extended University)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으로 대상을 넓혀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경우는 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해야 하지만 사업체나 단체에서 다수가 강의를 원할 때는 미국 내는 물론 한국으로의 출장 강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개인이 강의를 원하면 지원서를 받아 1-

20품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칼폴리 포모나 대학교는 경영, 농과, 교육, 공과, 인문사회, 자연과학대학 등 9개 단과대학에 100여개 학과가 있어 어느 분야든 자신의 사회생활과 연관된 학과나 취미생활을 위한 학과를 다양하게 택할 수 있으며 이수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위

증도 수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과에 대한 강의는 영어가 기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통역)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디렉터는 한인들 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밀알선교 수어찬양

남가주 밀알선교부터 2월2일까지 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수어 찬양과 수어 찬양을 위한 것으로 수어 찬양의 목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장소는 (6965 Knott Ave)의는 (714)522-으로 하면 된다.

몬테벨로 대대적 휴

몬테벨로 성이 어 블러버드의 성공적으로 추진 새로운 면모를 : 총 1,100만달러로 몬테벨로로 위되어 블러락에 걸쳐 진행로 거리의 모습즈니스 활성화에으로 시 당국은 정